

아산정책연구원-제주평화연구원 공동 워크숍

『저유가 고위험 시대 한-중동 협력: 중견국型 외교가 해답인가?』

일시: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 오전 10:30 - 오후 1시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일부터 9일까지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유가 하락과 테러 위협이라는 변수가 연초부터 부상하면서 향후 한중동 관계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산유 왕정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인이 이슬람 테러단체 IS에 가담할 정도로 이슬람 근본주의의 위세가 커지고 테러의 위협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유가 고위험 시대가 주는 기회는 활용하고 위기는 관리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와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아산정책연구원과 제주평화연구원은 공동으로 저유가 고위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저유가 고위험 시대 한중동 협력: 중견국型 외교가 해답인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동정책 공동 워크숍에는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장,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프로그램 연구위원,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이 참석하여, 기존 중동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해 보고, 그 대안으로 중견국 외교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논의했습니다.

프로그램

일시: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 오전 10:30 - 오후 1시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10:30 - 10:40	환영사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10:40 - 10:55	세션 1. 저유가 시대 한중동 경제협력 금융협력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의 다각화 [발표]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장
10:55 - 11:10	세션 2. 고위험 시대 對 중동 외교 고위험 시대 對 중동 정책, 중견국형 외교가 해답이다: 중동 중견국 외교 Q&A [발표]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프로그램 연구위원
11:10 - 11:30	세션 3. 종합 토론 [토론] 한인택,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토론]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11:30 - 12:00	질의응답
12:00 - 13:00	점심식사

금융협력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의 다각화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12년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중동지역의 산업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

- GCC(Gulf Cooperation Council)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 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비석유 부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 물류, 금융, 관광, MICE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및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보건의료시설, 학교, 주택 등과 같은 사회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중동 산유국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조달 및 직접투자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저유가 현상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 중동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재정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최근 GDP 대비 재정 흑자규모의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유국 정부들은 시공사에 금융 주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발전·담수화 사업의 경우 민간 독립사업자의 직접 투자를 선호하기도 함.
- 또한 중동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직접투자 진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함

따라서 국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해야 함.

- 1970~80년대에 효과적이었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계약 기반의 중동 진출 방식은 최근 국내 기업들간의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가 나타나는 배경이 되고 있음. 따라서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개발이나 운영 및 유지보수단계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프로젝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민간 부문의 직접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금융 조달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음. 단순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중동 국부펀드와 이슬람금융, 해외개발금융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중동 진출방식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금융협력은 GCC 지역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흥경제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우리나라 금융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중동 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내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임.

고위험 시대 對 중동 정책, 중견국型 외교가 해답이다: 중동 중견국 외교 Q&A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 **국제규범 준수와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중견국 외교,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정책이다?**
중견국 외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정책처럼 들리지만 실천하기엔 매우 어려운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경제 이익과도 크게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도적 지원금을 늘려야 하는 재정적 압박이 큰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기보다 인기 있는 정책은 아니다.

➤ **중동에서 중견국 외교를 추구하면 우리에게 닥칠 위험이 더욱 증가된다?**
국제규범 준수 강조와 테러의 표적 사이엔 인과관계가 없고 상관관계도 높지 않다. 최근 한국인이 IS 에 가담하고 인질 가능성이나 테러의 위협이 높아지면서 신중외교라는 미명아래 지켜보기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인 인질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군사적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에 그쳐도 테러공격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테러단체가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이러한 공격에 단기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자국민 보호는 우리 외교의 최고 목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외교행보와 자국민 보호 사이에는 높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10 여 년 전 이라크 전쟁과 달리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IS 와의 싸움에선 더욱 그렇다. 인도적 지원마저 노출을 꺼리는 소극적 행보로 인해 오히려 60 여 개 反 IS 연합전선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더 많다.

➤ **사우디 등 중동 산유왕정은 국제규범 관련 이슈를 꺼린다?**
IS 격퇴전은 사우디를 포함한 걸프 왕정의 정권 안정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테러리즘 반대라는 국제규범 논의를 무엇보다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일부 산유 왕정이 여성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논의를 불편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테러 반대의 원칙에 대해선 이견 없이 반길 것이다. 사우디, UAE, 카타르는 작년 9 월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IS 공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아랍의 봄 이후 역내 세력 재편성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애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나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유왕정과도 중동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 **對 중동 중견국 외교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나?**
對 중동 중견국 외교는 한반도 의제와 관련한 장기적 국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국제현안의 핵심 이슈인 테러 반대에 대해 국제규범의 준수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때 한반도 의제에서도 세계 여론의 지지와 윤리적 권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민 구호와 인권 보호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꾸준히 늘리고 60 여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IS 격퇴 국제연합전선 안에서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 4-5월 모술 탈환전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이 벌이는 IS 격퇴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나?

모술 탈환전은 IS 격퇴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테지만 연합의 일사 분란한 전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대부분의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략에 불만을 갖고 있고 연합전선 내 미국, 유럽, 중동 동맹국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IS 격퇴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유보하고 이란과 전략적 협력을 피하고 있어 반 아사드 동맹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터키는 쿠르드 자치정부군 페쉬메르가와 자유시리아군 만을 도와 IS와 아사드 정권을 동시에 격퇴할 것을 주장한다. 한편 유럽 동맹국들은 시리아의 경우 정부 차원의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시리아 내 IS 공습을 거부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순니 아랍 5개 동맹국들은 이라크 시아파 정부가 공식적인 채널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라크 내 IS 공습에 적극적이지 않다.

고위험 시대, 대중동 외교, 중견국형 외교가 해답이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대중동외교 자체 또는 대중동외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한국의 외교와 그의 틀 안에서 대중동외교를 언급하겠음.

이 세미나의 제목에 나와 있는 고위험 시대는 중동에만 한정된 것은 아님. 고위험은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의 증가이며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고위험은 국가간 세력분포의 변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력 행사 의지의 mismatch, 국가와 사회세력의 관계 변화, 경제침체, 글로벌 난제가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으며 전세계적으로 감지되는 현상임.

고위험 시대에 한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외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대중동 외교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문제임.

외교는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이고, 국가 이익을 달성하는 방식은 국가의 능력과 관계있음. 즉 능력에 기초하여 분류되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외교, 국가이익 달성 방식은 다름. 능력에 기초하여 볼 때에 한국은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니고, 그동안 한국이 국력을 신장시켜온 방식은 지속적으로 대외관계를 통해서였음.

대외 관계를 통해 중간 규모로 성장한 한국이 고위험 시대에 실시할 국익 달성 방식을 중견국외교로 규정해야 할 것임. 중견국외교는 한국에게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engagement 를 말하며 도덕적 이상주의는 아님. Engagement 에 비용이 드는 것은 불가피함.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engagement, free-riding 은 한국에게 허용되지 않음.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에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지불하는 것이 중견국외교임.

한국의 외교를 중견국외교로 규정할 때에 대중동 외교 또한 변화될 여지가 있음. 중동은 한국의 경제에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경제만을 강조해서 한국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고, 경제를 넘어서 저변에서 확대된 관계가 한-중동 경제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임.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위기를 도외시한 관계 강화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관계 강화로 나아가야 함. 그것은 장지향 박사가 발표한 내용과 일정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것임.

발표자 소개

강선주 박사는 국립외교원 부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사, 외교학 석사 학위를, 미국 미시간 주립 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노스 텍사스 대학교(the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정치학을 강의했다. 연구 분야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 금융 기구, 대외 원조, 중견국 외교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의 중견국 외교: MIKTA 출범과 개발협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박근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DA) 정책: 과제와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3), "Middle Powers in Global Governance: A Korean Perspective" in *Going Global: Australia, Brazil, Indonesia, Korea and South Africa in International Affairs* (Konrad-Adenauer-Stiftung 2011)가 있다.

이권형 박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경제학 석사 학위를, 영국 University of London (SOAS)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경제를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KIEP 연구보고서, 2014), "MENA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동향 및 국내 산업과의 연계방안" (KIEP 연구보고서, 2013), "이슬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구조와 위험요인" (전략지역심층연구 2012), "이란의 정치·권력구조와 주요 정파별 경제정책" (전략지역심층연구 2012), "Korea and the GCC: Reaching a Sustainable Economic Partnership" *MAP Project Paper* (Middle East Institute, 2014)가 있다.

장지향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중동연구프로그램 연구위원이다.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사, 정치학 석사 학위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에서 중동 정치, 비교 정치, 정치 경제, 국제개발협력을 강의했다. 저서로 클레멘트 헨리(Clement Henry)와 공편한 *The Arab Spring: Will It Lead to Democratic Transitions?* (Palgrave Macmillan 2013), 주요 논문으로 "혁명의 우발성과 다양성: 2011년 '중동의 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산정책연구원 이슈 브리프, 2011), "세계화 시기 자본의 민주적 함의: 이슬람 자본의 성장에 따른 무슬림 포괄 정당의 부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2010), "Islamic Fundamentalism"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2008)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파와즈 게르게스(Fawaz Gerges)의 «지하디스트의 여정» (아산정책연구원, 2011)이 있다.

한인택 박사는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이다.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국가전략』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한-중동 협력 포럼'을 조직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외교학 석사 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이화여대 전임 강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경향," 『국제정치논총』 (2013),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국과 국제정치』 (2011), "선제공격: 논리와 윤리," 『전략연구』 (2010) 등이 있다.